

# 일본이나 사우디냐...클린스만호, 오늘 16강 상대 결정된다

조 1위로 토너먼트행 가려면 대승 거둬야

일본·인니전 결과로 조기 16강 확정할 수도

대한민국이 속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 순위는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서 결정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30분(한국 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요르단과 1승1무(승점 4)로 같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다만 한국(+2)은 득실 차에서 요르단(+4)에 밀려 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2차전에서 조 1위 및 조기 16강 확정을 노렸지만, 진땀 승부 끝에 극적인 2-2 무승부로 승점 1 획득에 그쳤다.

이에 한국의 16강 자격 확정 및 조별리그 최종 순위는 말레이시아전에서 결정된다.

최종 순위에 따라 16강 상대도 달라진다. 이번 대회 대진표상 E조 1위는 D조 2위와 맞붙고, E조 2위는 F조 1위와 맞대결을 벌인다.

24일 현재 D조 2위는 일본이 유력하다. 이날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결과에 따라 2위가 결정된다. '강팀 킬러' 신태웅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끌며 반전을 노리지만, 팀 전력상 일본의 승리가 더 유력하다.

한국이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이겨 조 1위를 기록하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꺾는다면,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이 16강에서 만나게 된다.

일본을 피하기 위해 조 2위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현재 F조 1위가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

회에서 중동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데다, 물리적 거리상 카타르 현지 응원이 용이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부담스러운 상대다.

하지만 선수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1960년 제2회 아시안컵 우승 이후 64년 만의 정상을 노리고 있는 만큼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클린스만호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누구인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팀과도 마주할 수 있으며, 이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3차전에서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거둬 조 1, 2위가 되는 것 외에, 조 3위로 추락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각 조 3위 중 상위 4개 구단에도 토너먼트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패배하고, 바레인이 요르단을 누른다면 한국은 3위가 된다. 이때도 승점 4를 이미 확보한 한국은 다음 라운드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하면 A조 1위를 만나게 된다. 현재 조별리그 일정이 끝난 A조 선두는 개최국 카타르다.

홈 이점이 있는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전을 치르기 전에 먼저 16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일본(승점 3·골득실 1)과 인도네시아(승점 3·골득실 -1)가 24일 오후 8시30분 맞대결을 벌이는데, 이 경기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3차전을 치르기 전이지만 승점 4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손흥민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5일 말레이시아와 마지막 조별예선 3차전을 치른다.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패배하거나 인도네시아가 질 경우, 둘 중 한 팀은 한국보다 낮은 승점 3에 그치며 조별리그를 마치게 된다. 이때 한국은 탈락한 중국(승점 2), 일본 쪽

은 인도네시아보다 우위를 점하며 조 3위 조기 16강 진출에 성공한다. 반면 이런 경우의 수보다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 승리의 상승세를 타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이 현재 클린스만호가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래야 2차전에서 보여준 실망감도 단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스

## 손흥민·김민재 '동시 결장' 우려까지... '7명 경고' 변수로

줄줄이 경고 8강까지 유효...해당 선수들 경고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 못 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에서 공수의 핵심인 손흥민(토트넘)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동시에 결장하는 건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다.

문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7장이나 쌓인 경고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30분(한국 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요르단과 2차전에서 힘겹게 2-2로 비긴 한국은 1승1무(승점 4)로 요르단(승점 4)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2)은 골득실에서 요르단(+4)에 뒤져 순위에서 밀린다.

16강 진출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전 결과에 따라 일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 진출을 다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주축 선수들의 경고가 우승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바레인과 1차전에서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해 박용우(알아인), 이기제(수원), 조규성(미트윌란)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요르단과 2차전에선 오현규(셀틱), 황인범(즈베즈다)이 받아 총 7명이 경고 한 장을 안고 있다.

대부분이 클린스만 체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핵심 자원들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 16강전, 8강전 중 한 경기에서라도 경고를 받으면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전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고는 8강전 이후에 초기화된다.

가장 큰 아쉬움은 요르단과 치른 2차전이다. 만약 요르단을 상대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했다면 이 경기에서 일부러 경고를 받는 '카드 세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조 최약체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에 결장하면서 카드를 초기화하고, 16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체력 관리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르단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너먼트부터는 녹아웃 방식으로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경고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뉴스스



4승으로 다승왕에 오른 임진희. (사진=KLPGA 제공)

## LPGA 투어 진출한 임진희 "데뷔 첫 승 신인상 받은 후 세계랭킹 1위 도전할 것"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임진희(26)가 데뷔 첫 승과 신인상을 받은 후 세계랭킹 1위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진희는 25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드턴(CC파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6승을 수확한 임진희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Q) 시리즈에서 공동 17위에 올라 20위까지 주어지는 LPGA 투어 풀시드를 획득했다.

임진희는 지난해 4승을 쓸어 담자 다승왕에 등극했고, 대상포인트, 상금 부문에서 각각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량발전상도 거머쥐었다.

한국 무대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임진희는 더 큰 무대로 진출해 정상에 도전한다.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을 하루 앞둔 임진희는 "지난 시즌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드라이브 비거리와 짧은 거리의 퍼트가 아쉬웠다. 기복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중력이 더 발휘돼야 할 순간에 흔들렸다. 그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LPGA 투어에 진출한 것에 대해 "너무 절실했다. 골프를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연습에 매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그리고 과거 후원사, 마음 졸이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진실한 가르침을 주시는 코치님들도 많았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기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골프 선수인 만큼 골프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표는 1승과 신인상. 나아가서는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희는 "신인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이고, 목표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내 골프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세계랭킹 1위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 문동주·김혜성, 다저스·SD와 맞대결...MLB 서울시리즈 일정 나왔다

내달 17~18일 팀코리아·LG·키움, 다저스·SD와 겨뤘

입장권 예매 26일 시작...매주 한 경기씩 구매 가능

문동주(한화 이글스),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등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와 맞대결을 벌인다.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의 스페셜 게임 전체 일정이 확정됐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주관 중계권자인 쿠팡플레이는 24일 스페셜 게임과 입장권 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국가대표팀인 팀 코리아를 비롯해 키움, LG 트윈스,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SD)가 참가하는 스페셜 게임은 17~18일 이들 동안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총 4경기가 열린다.

3월17일 오후 12시에 개최되는 키움과 다저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7시에는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가 맞붙는다.

이튿날인 3월18일에는 오후 12시 LG와 샌디에이고의 경기가 열리고, 오후 7시 팀 코리아와 다저스가 격돌한다.

팀 코리아는 문동주, 김혜성, 원태인, 노시환(한화), 윤동희(롯데 자이언츠)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다.

스페셜 게임 4경기가 끝난 뒤 3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MLB 개막 2연전이 열린다.

경기 입장권 예매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고, 총 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판매가 진행된다. 첫 주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개막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매주 한 경기씩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MLB 개막 2연전과 스페셜 경기 4경기 등 총 6경기의 입장권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경기 입장권 판매는 쿠팡 와우회원의 특권으로 제공한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와 MLB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